

01 교회소식

언어로 만민을 잇는 가교

우리와 언어가 다른 전 세계 만민이 통역 전문가들의 서비스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목자의 권능으로 하나 되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_ 십계명 시리즈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온전한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을 받는 비결 중 하나이다.

03 기획특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의 자격을 살펴본다.

04 간증

“주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군요!”

권능의 역사를 목도하고 개종한 인도의 아다쉬 외만 형제와 이재록 목사 기도로 온 가족이 복음화 된 박금자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657호 2014년 10월 26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전 세계 만민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

매주 예배 8개 언어 동시통역 및 해외 집회 수행 통역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인도한 해외 연합대성회를 비롯, 전 세계에 생중계 되는 예배 및 교회 각종 행사에서 각국 언어의 통역 일꾼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가나안 시대에 세계 교구화를 대비한 전문적인 통역 일꾼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해외 연합대성회 시 설교 통역하는 김진홍 통역부 부장(사진 1 가운데)과 간증 통역하는 김순오 해외선교국 팀장(사진 6), 해외 출장 시 만민의 사역을 소개하는 김근실 통역부 팀장(사진 4),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해외 인사 만남 시 통역하는 박연희 통역부 팀장과 조승원 번역국 직원(사진 2,3), '2014 만민 하계수련회' 통역요원들(사진 5,9), 교회 행사 통역 및 통역 부스(사진 7,8).

해외 1만여 지·협력교회와 함께 세계 선교를 창대히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는 170여 개국을 커버하는 GCN 방송(www.gcnetv.org)을 통해 주일 대예배와 저녁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예배 등 매주 공예배를 비롯, 특별행사와 매일 밤 다니엘절야 기도회를 전 세계로 방영하고 있다.

이에 본당은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함께하는 외국 성도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8개 언어로 동시통역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은혜의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방문한 해외 성도들을 위한 수행 통역도 수반되고 있다. 만민 하계수련회, 기도원 집회 등 각종 행사 참석이나 만남, 교회 부서와 무안단물터 방문 등에 어려움이 없

도록 통역사들이 동행해 그들의 입과 귀가 돼 주고 있다.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정확한 통역을 하는 것이 영혼들의 믿음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역은 매우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현재 통역부 각 언어별 팀장과 부원, 해외 선교국과 번역국 직원, 자원 봉사자 등 많은 통역자가 수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재록 목사의 생명력 있는 메시지로 전 세계를 깨운다는 자부심을 갖고 여하 실력뿐 아니라 말씀 무장과 기도로 영적 능력을 겸비하고자 힘쓰고 있다.

특히 이재록 목사의 설교 및 교육에는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전하는 다양한 예화가 나오므로 역사, 시사, 정치, 경제, 문화, 교양 등 다방면에 지식을 습득하는 등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

통역부 김진홍 부장은 “더 많은 통역 인재를 확보하고 최상의 통역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준비 중이며, 재능 있는 젊은 세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라며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스페인어 통역을 담당하는 통역부 김근실 팀장은 “통역은 순발력, 정신력, 집중력, 인내력, 체력을 요하는 종합예술인 것 같아요. 통역 서비스를 받는 분들로부터 감사 메일이나 전화를 받을 때면 보람 있는 일임을 되새기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개척 때부터 세계 만민을 위해 사역해 온 우리 교회는 분야분야 통역이 많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해외 집회를 비롯, 2000년부터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수십, 수백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해외 연합대성회 시 설교 통역과 현지 성도들의 생생한 간증

통역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앞으로 가나안 성전이 건축되고 세계 교구화가 더욱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전 세계에서 본 제단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이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때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 등 각종 집회 요청과 국제회의, 수행 통역 등 통역의 수요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영육 간에 갖춰진 통역 일꾼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각 언어에 해당되는 통역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일본어 통역 봉사자 정희정 집사는 “십여 년간 사명 감당을 하면서 말씀 무장은 물론 통역 실력도 늘었고, 약 1억 2천 만 명의 일본인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됐어요. 올해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로 임용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라며 행복하게 간증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 20:8~11)

안식일이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 곧 주 안에서 편히 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의 유래를 살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에 기인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사역하시던 구약 시대에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됐지요.

이처럼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1. 신약 시대에 안식일이 주일 된 이유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이날을 주일(主日, 곧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날이 바로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된 안식

을 누리게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죄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 고달픈 삶을 살며 죄의 짐으로 인해 그 영혼이 놀려 있었지요. 이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써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아무 죄 없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손과 발에 못 박혀 나무 십자가에 달려야 했지요. 결국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지만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음에 참 안식을 누리며 장차 천국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죄인 된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고 참 안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하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0~12절에 “...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열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 년 되고 흙 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젃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수확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 이튿날이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수확한 곡식은 영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의미하며, 일 년 되고 흙 없는 수양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안식일 이튿날, 곧 일요일에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심

으로 주를 믿는 모든 이에게 부활과 안식을 주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1) 주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안식한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오락을 즐기며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안식은 몸의 피로를 풀어 주지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은 영적인 쉼 곧 참된 안식입니다. 세상일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진리 안에서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고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므로 주일에는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드려서 온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온전히 영적으로 교통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참된 안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을 인정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복을 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지키고 시험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사고와 질병, 위험으로부터 막아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룰 주심으로 범사에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2) 매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5~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안식일에도 노동하고 매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킴받지 못하고 재앙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노동을 하거나 이방인들과 더불어 매매하는 것을 철저히 금했고, 심지어는 안식일에 성 밖에서 잠자는 이방 상인들까지 쫓아내 버렸지요. 이는 혹여 안식일을 범할 가능성까지도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노동하거나 매매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옛세 동안 더욱 축복하시어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지만 주일에 매매 행위를 허용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성가대원들이 식사해야 하는데 식단이 없다면 사 주어도 무방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성도들이 예배를 충만하게 드리도록 편의를 위해 교회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익금은 개인이 사용하는 안 되며 구제나 선교 등 선한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 믿음이 연약해 주일에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주일 예배를 드린 후 결혼식에 참석해도 됩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일을 지키되 형제를 위해 축하해 주어도 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혹여 서운하게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송사하고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병든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는 의사나 간호사,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군인, 경찰 등 특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일에 업무를 보는 것은 선을 행하는 일이므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업무를 처리한다고 해서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 안에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주일을 거룩히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받아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차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의 일꾼이 되려면?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마지막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섭리를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7가지 요건을 살펴봄으로 신속히 영적 장수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1. 화평을 이뤄야 한다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내 화평을 깬다. 큰 소리로 다투지 않는다 해도 서운해하고 불편해한다. 또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무관심한 것을 볼 수 있다.

만일 불만이 있고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그만큼 자기 의가 있고, 섬김받고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화평'을 이루려면 자기 의와 교만을 버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을 이룬다면 화평이 깨어질 일이 없다.

2. 서운함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서운함은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령, 아랫사람으로서윗사람에게 양보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하자. 그러면 자신이 약자로서 양보할 수밖에 없고,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잣대로 바라보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기에 나오는 감정이다.

진정 온유하고 화평한 마음으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양보했다면 손해를 보았다고 해도 서운한 감정이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가 좋은 것을 취했으니 자신이 유익을 얻은 것과 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3.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하고 자신이 편리한 대로 상대를 주관하려고 한다. 자신의 마음과 뜻에 맞지 않으면 쉽게 상대를 지적하고 책망하며 무안을 주기도 한다.

진정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 한다. 내 것, 내 욕심, 내 가족, 나 보기에 의로움, 내 고집 등이 없어져야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배려하고 섬길 수 있다.

설령 진리를 알고 나름대로 섬긴다고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불편한 일들을 볼 때 마음에 담아 놓게 되고 언젠가는 변질되는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4. 마음이 거룩해야 한다

사람이 마음의 악을 버리고 거룩하게 되면 말도 자연히 거룩해진다(마 12:34-37).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는 말, 낙담하고 절망하게 하는 말들은 떠오르지도 않고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한다. 거룩하지 않은 말로 인해 사단의 송사를 받으니 서로 감정이 상해서 화평이 깨어지고 분쟁이 일어나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선한 표현을 사용하며, 단어 하나를 사용해도 은혜로운 표현으로 상대에게 감동을 준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선하고 거룩한 진리의 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믿음의 말로써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육신의 생각이 없어야 한다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없다(롬 8:6-7). 하지만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뜻에 맞춰 생각하는 것을 뜻하며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부족한 분야를 깨달았을 때 육신의 생각은 자기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낙심과 슬픔을 가져다준다. 총만하게 달려가는 주위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서운함과 감정이 나오기도 한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 정죄할 뿐 아니라 자신조차 악하게 바라봄으로 스스로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미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능히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영의 생각을 하면 믿음으로 불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힘을 얻을 수 있다. 연단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는 생각에 두렵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녀를 더욱 품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이처럼 영으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할 때 신속하게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다.

6. 들레지 말아야 한다

들레다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부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 원하고 그만큼 대접을 받기 원하는 것이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면 다른 사람들과 무엇을 할 때도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따라줘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자세가 된다.

그래서 은근히 들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핍박을 받는 것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마음 중심에서 온전히 겸비한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친히 높여 주심으로 영적으로 존귀한 자리에 이를 수 있다.

7. 자신이 영광받고 칭찬받기 원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사명을 맡아 감당하고 영광 돌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기 원하는 마음이 드러나기도 한다.

혹여 이 같은 마음이 자신에게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려면 지적과 권면, 혹은 책망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진정 자신이 영광받고 칭찬받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자신이 낮아지는 상황이 돼도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선한 고백이 나올 것이다(마 15:27).

이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라면 어떤 말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화평을 좇기 원하고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이라도 내주므로 상대의 마음을 편케 해주기를 원할 것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겸비한 마음으로 오직 주의 영광만 구하는 영적 장수가 되기를 바란다.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November

2014.10.26-11.1

● 축복 1 ●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1-2

● 위로부터 난 지혜 7-9 ● 생명의 씨 1

● 요한계시록 강해 37 ● 공간과 차원 1-2

● 요한일서 강해 23-27

● 창세기 강해 64-68 ● 죄의 뿌리와 성결 1-2

● 믿음을 착량하시니 20-24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축복권과 자주권 1 (이수진 목사)

● 게으른 자 2 (이미영 목사)

● 영의세계 21 (이화선 목사)

● 생명수 1 / 믿음의 분량 2 (신동초 목사)

● 탕자의 비유 3 / 열 재앙 9 (정구영 목사)

● 성령의 9가지 열매 1~2 (김수정 목사)

● 목자의 마음 (천우진 전도사)

GCN TV설교

예능 프로그램

● 즐거운 요리 17

● 옛날 옛적에 9

● 모두 드려요 17

● 흥겨운 소리 8

● English 9 ● 만민지킴이 6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2

● 찬양 드려요 20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38

● 향기 23 ● 플로리스트 12

● 뷰티풀 라이프 9

● 회상 18

● 인도 연합대성회 2

● 2014 기관장 교육 5-6

해외성회 및 교육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사지 마비로 영구 장애 판정받은 사촌 동생이 혼자 걷게 됐습니다”

아다쉬 와만 (인도, 21세)



우리 가정은 조상 대대로 힌두교를 믿는 브라만 집안으로 마당에 힌두교 사원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인도 수도 델리에서 남동쪽으로 200km 떨어진 마투라 지역에서 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인근에 사는 고모의 아들 링쿠(18세, 오른쪽 사진)는 선천성 뇌성마비여서 말을 하지 못했고,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했습니다. 가족이 항상 곁에서 링쿠를 보살펴야 했지요. 링쿠를 치료하기 위해 여러 병원과 힌두교 사원을 방문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2010년 7월에는 인도국립병원에서 사지 마비로 온몸의 75%가 회복 불가능한 영구 장애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흑시나 책을 통해서라도 치료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 하여 2014년 2월에 개최된 델리국제도서전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도서전에 참가한 우림복의 부스를 가게 됐는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에 대해서 들

게 됐지요. 참으로 놀라웠고, 동생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 뒤 4월, 저는 델리만민교회를 찾아가서 김상휘 목사님에게 하나님 권능으로 치료된 놀라운 사례들을 들으며 “만일 동생이 치료받으면 그때 교회를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2014년 5월 초, 김상휘 담임 목사님은 전화로 링쿠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전,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손수건을 전화기에 얹고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직접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스피커폰으로 링쿠와 가족 모두 함께 기도를 받았지요. 놀랍게도 링쿠의 마비 증세는 호전됐습니다.

저는 5월 25일 주일, 링쿠를 데리고 고모와 함께 델리만민교회를 방문했습니다. 45도의 더운 날씨에 링쿠와 함께 냉방

이 되지 않는 버스과 택시를 갈아타며 네 시간 거린 델리만민교회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 후 김상휘 담임 목사님은 새신자들을 위해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함께 참석한 새신자 중 한 자매가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린다고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동생 링쿠가 의자에서 일어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 태어난 지 18년 만에 처음으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뒤 링쿠는 마비가 풀려 손이 펴지고 혼자 식사도 하고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입도 풀려 말도 배우고 있지요. 할렐루야!

이제 링쿠가 치료받아 가족 모두 행복합니다. 이 일로 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참 생명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하나님 권능의 주인공이에요”

박금자 집사 (중국 1교구, 54세)

◀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실명된 눈이 보이고, 중이염, 만성 두통, 비염 등 각종 질병을 치료받은 박금자 집사(가운데) 가족

만민중앙교회에서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카 옥화 자매로부터 시작된 권능의 역사가 가족의 복음화를 이루는 믿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2007년 어느 날, 우리 교회 지교회로 다니던 조카가 꿈속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뒤 20년 된 변비를 치료받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엄마 박금선 집사님이 2008년 3월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신기한 일이 있었지요.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을 때 머리 뒤 쪽에서 불덩어리 같은 뜨거운 것이 위로 쪽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 주 당회장의 기도를 받은 뒤에는 45년 된 두통이 완

전히 사라졌지요. 이러한 체험을 한 박금선 집사님은 동생인 저를 우리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2013년 봄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된 저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6월에는 아버지 박중석 성도님을 전도했지요. 그런데 아버지도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 후 실명이 된 아버지는 2차 수술을 받고자 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수술해도 회복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3 만민 하계수련회’ 첫날 은사집회 때 당회장님 기도를 받은 뒤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안 오빠 박경주 성도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라고 고백하며 며칠 후인 8월 15일에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설교를 마

친 후 당회장님께서 환자 기도를 해 주실 때 위장 부분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난 뒤 위염을 치료받은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체험했지요. 약 20년간 과민성 비염으로 에어컨 바람이나 음식 냄새로 재채기에 시달렸고, 콧물을 자주 닦다 보니 코가 헐고 두통도 있었습니다.

피부 습을 운영하는 저는 손님에게 실례되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고 침술, 병원, 약 등을 통해 치료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4 만민 하계수련회’ 첫날, 은사집회 때 당회장님 기도를 받은 뒤 고질적인 비염을 치료받은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듯했지요.

이처럼 살아 계셔서 온 가족을 치료해 주시고 참 행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회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향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서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4201 207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70, 010-2208-571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람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9번길 43, 2층 ☎031)202-8480, 010-5526-574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